

Yeosu Web Contents

2024년 09월 20일 18시 36분



목차

목차	2
보도자료 - 전체	3
여수 거문도 바닷길 '할짝' 열렸다.	3

보도자료

해명자료

여수 거문도 바닷길 ‘할짝’ 열렸다.

2024.07.05 조회수 564 담당부서 섬발전지원과 연락처 061-659-3981

여수~거문 간 신규 여객선 ‘하멜호’ 취항...1일 2회 왕복 운항, 2시간 소요

여수~거문 간 정기여객선 ‘하멜’호가 신규 취항함에 따라 거문도 바닷길이 ‘할짝’ 열렸다.

시에 따르면 케이티(KT) 마린 선사 주최로 5일 오후 여수 엑스포 터미널에서 정기명 시장, 주철현 국회의원, 선사 관계자, 마을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거문간 정기여객선 ‘하멜호’ 취항식이 열렸다.

‘하멜호’는 590톤 규모에 여객정원 430명, 최대속도 40노트에 달하는 초쾌속 대형 여객선으로 여수~나로도~손죽~초도~거문 항로를 운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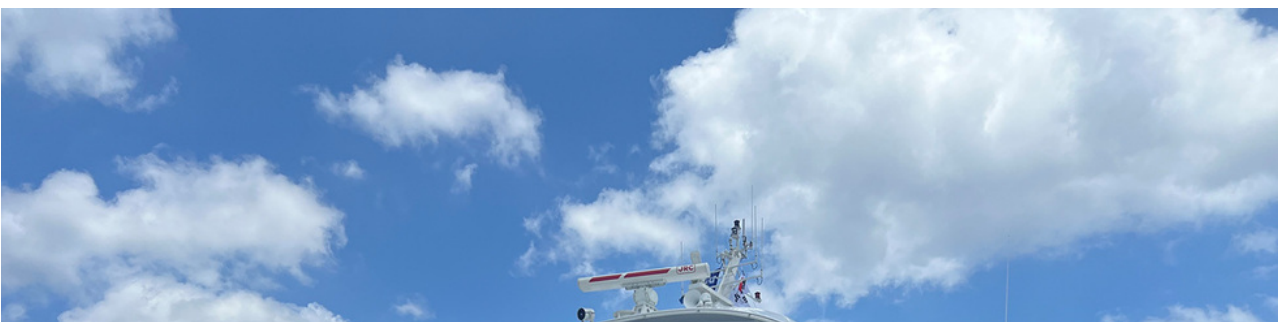
1일 오전, 오후 2차례 왕복 운항 예정이며, 여수~거문 간 운항 시간은 2시간 10분 정도로, 기존 3시간이 넘는 항해 시간을 단축하며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여수~거문항로는 기존 정기여객선 선령 만료 시기 도래 및 선박 노후화로 인한 잦은 결항, 1일 1회 왕복에 따른 여객선 이용객 접근성 저하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여수시는 여수~거문 항로 안정화를 위해 선사 공모, 조례 개정, 해수부 면담 등 다각적 방법을 모색해 왔으며, 지난 해는 10여 일간의 장간 결항에 따라 선사나 지방 해수청이 아닌 지자체에서 ‘예비선 확보’라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번 신규 출항하는 ‘하멜호’는 해수청 공모를 거쳐 선정된 케이티(KT)마린 선사의 여객선으로 해수청 최종 운항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 전후 정식 운항이 개시될 예정이며, 여수시는 향후 10년간 케이티(KT)마린 선사에 선박 감가상각비, 운항 결손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취항식에서 정기명 여수시장은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로 섬이 많고, 특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둔 우리시는 섬 주민의 해상교통권 확보는 중요한 책무”라며 “섬 주민의 가장 큰 숙원인 여객선이 신규 취항하게 돼 대단히 기쁘고, 더 안전한 해상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www.yeosu.go.kr>)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1 여수 거문도 바닷길 '활짝' 열렸다..jpg (79 hit/ 396.8 KB) ↓

[미리보기](#)

 1-1 여수 거문도 바닷길 '활짝' 열렸다..jpg (76 hit/ 250.4 KB) ↓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여수시. 도시재생사업 종료지구 사후활용 성공 해...

다음글

정기명 여수시장. 3년차에도 민생현장 살피기 '분...

(<http://www.yeosu.go.kr>)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Yeosu Web Contents

